

어머니의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채진영¹⁾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이강이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어머니가 아동기 때 형성한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와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서울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의 남아 96명과 여아 85명과 그들의 어머니 181명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정한 LaFreniere와 Dumas(1996)의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Inventory(SCBE)로, 어머니의 아동기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은 Hazan와 Shaver(1992)이 개발한 Adult Attachment Scale(AAS)를 곽소현(2005)이 수정한 질문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Crase 등(1978)이 개발한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other Form(IPBI: MF)을 홍계옥(1995)이 수정한 질문지로 각각 측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통계처리 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은 유아의 공격성과 우울/고립에만 영향을 주었고, 이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반면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이 유아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머니의 반응성과 애정성은 부분매개를, 쾌활/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머니의 한계설정, 합리적 지도, 반응성은 각각 완전매개를, 공격성과 우울/고립에 대해서 어머니의 한계설정, 합리적 지도, 애정성은 각각 부분매개를 하였다. 이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의 영향과 이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 각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 발달을 위한 조기개입이나 유아상담, 또는 어머니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애착표상, 양육행동, 사회적 능력, 매개효과, 구조방정식

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선임연구원

2)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기금부교수 및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E-mail : kangyil@sn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근래 경쟁적인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자녀의 사회정서발달보다는 인지발달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정신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유아가 증가하고 있다(시사저널, 2007). 그러나 우리 사회는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지닌 구성원을 필요로 한다. 최근에는 친사회적 행동을 전제로 타인과 얼마나 폭넓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망(social network)은 개인의 사회적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유아기는 청소년기나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심리적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인 동시에 개인의 인성발달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형성된 사회적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사회적 능력 발달의 개인차가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Klitzing, Stadelmann, & Perren, 2007). 사회적 능력의 긍정적인 측면이 발달하는지 부정적인 측면이 발달하는지의 문제는 이후 맺게 될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개인의 정신적 안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Goldberg, 2000). 따라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친사회적 행동과 쾌활 및 통합적 행동의 긍정적인 측면, 공격적인 행동과 우울 및 고립적 행동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이러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면

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모일 것이다. 부모-자녀 관계는 생후 최초의 대인관계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는 여러 대인관계 경험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방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Bretherton, 2005; Foster, Reese-Weber, & Kahn, 2007; Goldberg, 2000). 유아는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여러 선행연구들(이진숙, 한지현, 2004; 홍계옥, 1995; Dekovic & Janssens, 1992; Ladd & Gloter, 1988; MacDonald & Parke, 1984; Pettit, Dodge & Brown, 1988)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유아는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타인과 조화로운 생활을 하는 등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유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을 관찰연구한 Boyum과 Parke(1995)는 애정이 부족하고 냉담하고 거부적이며 체벌을 가하거나 지나치게 허용적인 어머니는 스스로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 유아의 공격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위축을 예측하고(이순형, 이옥경, 민미희, 2006), 우울 및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영희, 박영애, 박인전, 신민섭, 2002).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어머니

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각각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이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한계설정과 합리적 지도로 나타나는 이성적인 행동과 반응성과 애정성으로 나타나는 정서적인 행동의 4개 하위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유아의 사회적 능력인 친사회성, 쾌활/통합, 공격성, 우울/고립의 4개 하위요인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Belsky(1984)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의 경로모형을 제시하며 부모 자신이 어린 시절 원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한 애착표상이 이후 자녀에 대한 자신의 양육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아동기 원부모 애착표상을 안정적으로 회상할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들(정운주, 2008; Cowan, Cohn, Cowan, & Pearson, 1996; Main, Kaplan, & Cassidy, 1985; Simons, Beaman, Conger, & Chao, 1993)에 의하면 어린 시절 원부모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부모는 자신을 원부모와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이후 자녀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양육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반면, 원부모에 대해 불안정한 애착표상을 형성한 부모는 원부모를 통해 학습된 부정적인 훈육이 자신의 양육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 통제하고 애정이 부족한 양육행동을 보이거나, 자신의 부모에 대한 보상심리로 인해 자녀들의 행동을 지나치게 허용하는 양육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한 요구에 대한 반응, 인식, 감정들이 스스로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우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Clarke & Dawson, 1998). 그

러나 성인애착면접을 통해 분류한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상반된 결과를 보고한 연구(강차연, 장연집, 1999)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아동기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 가운데 어머니의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을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과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을 구분하지 않은 연구(강차연, 장연집, 1999; 서기남, 문혁준, 2008; 정운주, 2008; 한영옥, 2002; Cowan, et al., 1996)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구분한 연구(곽소현, 2005)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만을 살펴 보았기 때문에 사회적 능력에 개인차가 많이 나타나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에 관한 자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과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이 어머니 자신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별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양육행동의 한계설정, 합리적 지도, 반응성, 애정성 등 4개 하위요인에 각각 미치는 어머니의 원아버지 애착표상과 원어머니 애착표상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표상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진다(Sroufe, 1988). 애착이론을 처음 소개한 Bowlby(1982)에 의하면 부모가 아동기 때 형성한 애착표상은 변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유지

되는 표상적 항상성(representational homeostasis)을 바탕으로 스스로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영향은 결국 자녀의 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원부모 애착표상이 자녀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어머니-자녀와 관련된 매개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영옥(2002)은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매개요인으로 어머니의 정서를 살펴보고, 곽소현(2005)은 어머니의 정서 이외에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인 과보호와 권위주의적 통제까지 매개요인으로 포함시켰으나, 이 연구들은 모두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Cowan등(1996)은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학령전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연구했으나, 이 연구 역시 유아의 친사회적행동을 배제하고 문제행동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어머니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표상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하여 살펴본 국내의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표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보다 균형있게 이해하고자 부정적인 문제행동 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친사회적 행동을 포함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 유아의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 발달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과 어머니를 대

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연구가설 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가 아동기 때 형성한 원부모에 대한 착표상(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과 양육행동(한계설정, 합리적 지도, 반응성, 애정성), 유아의 사회적 능력(친사회성, 쾌활/통합, 공격성, 우울/고립)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가 아동기 때 형성한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친사회성, 쾌활/통합, 공격성, 우울/고립)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와 이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한계설정, 합리적 지도, 반응성, 애정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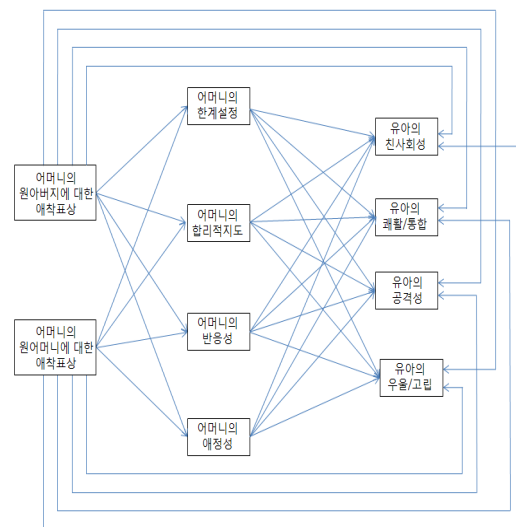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가설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임의선정한 8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181명과 그 어머니 181명, 유아의 담임보육교사 11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이 남자는 전체 53.0%, 여자는 47.0%였으며 평균 월령은 65.2개월($SD=3.57$)이었다. 전체 어머니의 86.2%가 30~40대였으며, 48.6%는 대도시에서 아동기를 보냈다. 62.4%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녔으며, 30.9%는 기술사무직에, 14.9%는 교육관련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는 26.0%였다. 또한 62.4%는 월 가구총소득이 301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지위는 중류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유아의 사회적 능력

LaFreniere와 Dumas(1996)는 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보이는 사회적 행동을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정할 수 있도록 80문항, 6점 리커트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Inventory, SCBE). 평정하는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자들은 이 도구를 타인을 배려하는 친사회성을 평정하는 10문항, 심리적 부적응으로 인해 폐쇄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우울/고립 등의 내재화된 문제행동에 관한 10문항, 싸우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81)

변인		N	%
유아 성별	남	96	53.0
	여	85	47.0
유아 월령	58~64개월	73	40.3
	65~72개월	108	59.7
어머니 연령	30세 미만	6	3.30
	30~35	71	39.2
	36~40	85	47.0
	41~45	18	10.0
	46세 이상	1	0.5
	고졸	32	17.7
어머니 학력	2년제 대학 졸	36	19.9
	4년제 대학 졸	86	47.5
	대학원 졸	27	14.9
어머니 성장지역	대도시	88	48.6
	중소도시	39	21.6
	농어산촌	54	29.8
어머니 직업유무	경영관리직	5	2.7
	기술사무직	56	30.9
	법률의료직	7	3.9
	교육직	27	14.9
	자영업	15	8.3
	일용생산직	1	0.6
	자유업	17	9.4
	기타	6	3.3
	무직	47	26.0
	100원 미만	2	1.1
월 가구 총소득	101~200원	14	7.7
	201~300원	52	28.7
	301~400원	59	32.6
	401원 이상	54	29.8

려는 경향이 있고 갈등 해결 기술이 제한적인 공격성의 외현화된 문제행동에 관한 10문항 등의 3개의 하위 요인 총 30문항의 6점 리커트로 재구성하였다. 현재 이 축소판(SCBE-30)은 미국 Head Start 프로그램에서 유아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평정하기 위하여 꾸준히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교문화 연구에도 사용되어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서양 8개국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통하여 그 타당성이 검증되었다(LaFreniere, Masataka, Botovskaya, Chen, Dessen, Atwanger, Schreiner, Montirosso, & Frigerio, 2002).

이 연구에서는 SCBE-30의 30문항에 기존의 SCBE의 문항 가운데 기본 정서가 긍정적이고 타인과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즐기는 쾌활/통합을 평정하는 7문항을 추가하여 총 37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른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거나 위로해준다’ 등의 친사회성과 ‘다른 아이들과 협동적이다’ 등의 쾌활/통합을 긍정적인 하위요인으로, ‘다른 아이들을 때린다’ 등의 공격성과 ‘웃거나 미소짓지 않고 무표정하다’ 등의 우울/고립을 부정적인 하위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친사회성과 쾌활/통합의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격성과 우울/고립에 관한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또는 우울/고립의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적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차례대로 .73, .93, .89, .84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표상

어머니가 아동기 때 원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한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Hazan와 Shaver(1992)이 개발한 성인 애착 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Jeon(1994)번안하고 곽소현(2005)이 수정한 질문지 문항 중 의미가 겹치는 1개 문항을 제외한 총 15문항의 성인 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과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을 각각 측정하였으며, 질문의 내용은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등의 안정,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나를 깔보거나 무시할까봐 걱정했다.” 등의 불안, “나는 아버지(어머니)로부터 독립된 시간이 필요했다.” 등의 회피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7점 척도 리커트 척도인 것을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바꾸어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최저 15점에서 최고 75점의 분포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아동기 때 형성한 원부모와의 애착표상을 안정적으로 회상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과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각각 .84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Crase 등(1978)이 개발한 아이오와 부모행동 측정 목록 중 어머니용(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other Form, IPBI: MF)을 홍계옥(1995)이 번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문항들은 애착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일면들을

잘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rase, Clark, & Pease, 1978). ‘정해진 취침시간을 지키도록 요구한다’ 등의 한계 설정 관련 5문항,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해 준다’ 등의 합리적 지도 관련 8문항,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리면 아이에게 즉시 달려간다’ 등의 반응성 관련 5문항, ‘아이를 껴안거나 쓰다듬는 등 신체적 애정표현을 한다’ 등의 애정성 관련 8문항의 4개 하위요인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차례대로 .77, .83, .69, .74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생활과 행동에 일정한 제한을 제시하되 이를 일관성 있게 설정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며, 자녀에게 행동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수용되는 행동과 수용되지 않는 행동의 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함께 생각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며, 자녀가 필요로 하면 하던 일을 중지하고서라도 더 많은 반응을 해 주고, 자녀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을 하고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동을 더 많이 나타냄을 의미한다.

3. 연구 절차

예비조사는 2008년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집 1곳에서 실시되었고, 담임보육교사 2명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평정하였고 어머니 25명이 자신의 양육행동과 아동기 때 형성한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을 회상하여 응답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표상을 물어보는 질문지에서 ‘나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아버지(어머니)와 나누었다’라는 문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혼자 마음속에 담아 두는 편이었다.’의 문항이 의미상 중복될 뿐 아니라 원부모의 애착표상에 관한 질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후자를 삭제하여 총 15문항의 질문지로 수정하였다. 유아의 담임보육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 평정 질문지의 경우, 의미 전달에 무리가 없었으므로 수정사항 없이 본 조사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12월 8일부터 2009년 1월 8일까지 실시하여 어머니 226명과 유아의 담임교사 1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가 배포되었다. 어머니의 질문지는 199부가 수거되어 88%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부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1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담임교사가 사회적 능력을 평정한 유아도 181명의 어머니와 쌍을 이루는 181명만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4. 자료 분석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과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이 자신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고,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는 최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적합지수는 χ^2 값, Normed χ^2 값, GFI(Goodness-of-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III.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과 양육 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변인들의 관계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다. 어머니는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M=32.79$, $SD=1.78$)보다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M=$

41.28, $SD=2.63$)을 더 안정적이라고 회상하였고,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3.01$, $p<.01$) 자신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가운데 합리적 지도를 가장 높게($M=29.64$, $SD=1.06$), 반응성을 가장 낮게($M=15.97$, $SD=1.27$) 평가하였다. 유아의 담임보육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 가운데 공격성과 우울/고립은 역코딩하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우울/고립 등의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적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대상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은 많이 하고($M=42.74$, $SD=2.79$), 공격적인 행동은 적게 하는 것($M=40.88$, $SD=1.69$)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3와 같이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반면,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의 경우, 자신의 원어머니에

표 2.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

(N=181)

변인	가능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어머니의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	15~75	32.79	1.78	.84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	15~75	41.28	2.63	.84
	한계설정	5~25	17.06	2.46	.77
어머니의 양육행동	합리적 지도	8~40	29.64	1.06	.83
	반응성	5~25	15.97	1.27	.69
	애정성	8~40	27.87	1.84	.74
	친사회성	10~60	42.74	2.79	.73
유아의 사회적 능력	쾌활/통합	7~42	29.67	1.51	.93
	공격성	10~60	40.88	1.69	.89
	우울/고립	10~60	32.03	0.94	.84

표 3.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사회적 능력			
	1	2	3	4	5	6	7	8	9	10
1.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	1.00									
2.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	.07	1.00								
3. 어머니의 한계설정	.05	.35**	1.00							
4. 어머니의 합리적지도	-.05	.36**	.81**	1.00						
5. 어머니의 반응성	.04	.42**	.64**	.74**	1.00					
6. 어머니의 애정성	-.04	.29**	.67**	.85**	.80**	1.00				
7. 유아의 친사회성	.04	.19**	-.45**	.60**	.58**	.50**	1.00			
8. 유아의 쾌활/통합	.04	.07	-.38**	.49**	.50**	.46**	.77**	1.00		
9. 유아의 공격성	.26**	.68**	-.13	.04	.04	.09	.22**	.35**	1.00	
10. 유아의 우울/고립	.17*	.58**	-.12	.06	.11	.13	.30**	.47**	.96**	1.00

* $p < .05$, ** $p < .01$

대한 애착표상이 안정적인수록 어머니는 자녀의 생활과 행동에 일정한 제한을 일관성 있게 하고($r = .35, p < .01$), 수용되는 행동과 수용되지 않은 행동에 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r = .36, p < .01$), 자녀의 요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며($r = .42, p < .01$), 신체적인 친밀감과 애정표현을 더 많이 하였다($r = .29, p < .01$). 또한 어머니가 합리적 지도와 반응성, 애정성을 많이 나타낼수록 유아는 타인을 더 많이 배려하고($r_{\text{합리적 지도-친사회성}} = .60, p < .01$; $r_{\text{반응성-친사회성}} = .58, p < .01$; $r_{\text{애정성-친사회성}} = .50, p < .01$), 긍정적인 정서로 타인과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더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r_{\text{합리적 지도-쾌활/통합}} = .49, p < .01$; $r_{\text{반응성-쾌활/통합}} = .50, p < .01$; $r_{\text{애정성-쾌활/통합}} = .46, p < .01$). 반면 이러한 유아의 친사회성과 쾌활/통합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

에 한계설정과 각각 부적상관($r_{\text{한계설정-친사회성}} = -.45, p < .01$; $r_{\text{한계설정-쾌활/통합}} = -.38, p <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생활과 행동에 일정한 제한을 일관성 있게 많이 할수록 유아는 타인을 더 많이 배려하고 긍정적인 정서로 타인과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적음을 의미한다.

2. 어머니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표상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가설모형 검증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어머니의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대한 가설 모형이 적합한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를 구한 결과, CFI은 .80으로

표 4. 가설모형의 경로계수

계수 경로			B	β	S.E.	C.R.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	→	어머니의 한계설정	-.01	-.03	.02	-.46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	→	어머니의 합리적지도	-.00	-.01	.03	-.17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	→	어머니의 반응성	.01	.03	.03	.57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	→	어머니의 애정성	-.01	-.04	.01	-.67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	→	유아의 친사회성	.38	.41	.08	4.65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	→	유아의 쾌활/통합	.37	.43	.08	4.99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	→	유아의 공격성	.84	.23	.24	3.47***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	→	유아의 우울/고립	2.20	.39	.36	6.07***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	→	어머니의 한계설정	.23	.59	.02	9.89***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	→	어머니의 합리적지도	.31	.59	.03	10.01***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	→	어머니의 반응성	.34	.62	.03	11.01***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	→	어머니의 애정성	.08	.52	.01	8.28***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	→	유아의 친사회성	.19	.24	.04	5.05***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	→	유아의 쾌활/통합	.23	.32	.04	6.71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	→	유아의 공격성	2.28	.76	.11	20.33***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	→	유아의 우울/고립	3.37	.71	.17	19.93***
어머니의 한계설정	→	유아의 친사회성	-.23	-.10	.14	-1.60
어머니의 한계설정	→	유아의 쾌활/통합	-.35	-.16	.13	-2.67**
어머니의 한계설정	→	유아의 공격성	-1.06	-.12	.42	-2.53*
어머니의 한계설정	→	유아의 우울/고립	-2.52	-.18	.63	-3.96***
어머니의 합리적지도	→	유아의 친사회성	.42	.24	.11	3.95
어머니의 합리적지도	→	유아의 쾌활/통합	.48	.29	.10	4.91***
어머니의 합리적지도	→	유아의 공격성	1.36	.20	.31	4.36***
어머니의 합리적지도	→	유아의 우울/고립	2.63	.25	.47	5.59***
어머니의 반응성	→	유아의 친사회성	.38	.22	.11	3.55***
어머니의 반응성	→	유아의 쾌활/통합	.09	.05	.10	.86*
어머니의 반응성	→	유아의 공격성	.31	.05	.32	.98
어머니의 반응성	→	유아의 우울/고립	.61	.06	.48	1.26
어머니의 애정성	→	유아의 친사회성	.22	.24	.32	.68*
어머니의 애정성	→	유아의 쾌활/통합	.61	.12	.30	2.05
어머니의 애정성	→	유아의 공격성	2.82	.30	.96	2.96***
어머니의 애정성	→	유아의 우울/고립	2.73	.38	1.44	1.89*

* $p < .05$, ** $p < .01$, *** $p < .001$

다소 낮게 나왔으나 Normed χ^2 값은 5.29, GFI은 .85, TLI은 .87, RMSEA은 .10으로 나타나 이 가설모형은 수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설모형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 가운데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공격성($\beta=.23, p<.001$)과 우울/고립($\beta=.39, p<.001$)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이 안정적인수록 유아는 공격적이거나 우울/고립된 행동을 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 가운데 긍정적인 측면인 친사회성과 쾌활/통합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은 어머니 양육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은 어머니 양육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은 한계설정에 정적인 영향($\beta=.59, p<.001$)을 미쳤고, 어머니의 한계설정은 다시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가운데 쾌활/통합($\beta=-.16, p<.01$), 공격성($\beta=-.12, p<.05$), 우울/고립($\beta=-.18, p<.001$)에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과 다른 것으로 어머니가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이 안정적이라고 회상할수록 자녀의 생활에 일정한 제한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

지만, 어머니가 이러한 한계설정 관련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는 덜 쾌활하고 덜 통합적이며, 더 공격적이고, 더 우울하거나 더 고립된 행동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한편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은 유아의 공격성($\beta=.73, p<.001$)과 우울/고립($\beta=.71, p<.001$)에 대해 각각 상대적으로 커다란 정적 영향력을 나타내서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이 안정적인수록 유아는 공격적이고 우울하거나 고립적인 행동을 덜 하였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한계설정은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이 유아의 공격성과 우울/고립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부분매개 하였고, 쾌활/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합리적 지도 역시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의 정적인 영향($\beta=.59, p<.001$)을 받았다. 즉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이 안정적인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되는 행동과 수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는 다시 유아의 쾌활/통합($\beta=.29, p<.001$), 공격성($\beta=.20, p<.001$), 우울/고립($\beta=.25, p<.001$)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합리적 지도를 많이 할수록 유아는 쾌활 또는 통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고 공격적이거나 우울 또는 고립된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이 쾌활/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는 완전매개 하였고, 공격성과 우울/고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각각 부분매개 하였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세 번째 하위요인인 반응성은 어머니의 원

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의 정적인 영향($\beta=.62$, $p<.001$)을 받아 유아의 친사회성($\beta=.22$, $p<.001$)과 쾌활/통합($\beta=.05$, $p<.05$)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이 안정적일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하던 일을 중지해서라도 더 많은 반응을 보여주고, 어머니가 긍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할수록 유아는 친사회적인 행동과 쾌활 또는 통합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함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은 유아의 친사회성과 쾌활/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어머니의 반응성에 의해 각각 완전매개 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의 정적인 영향($\beta=.52$, $p<.001$)을 받은 어머니의 애정성은 유아의 친사회성($\beta=.04$, $p<.05$), 공격성($\beta=.13$, $p<.01$), 우울/고립($\beta=.08$, $p<.05$)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가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을 안정적으로 회상할수록 자녀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을 더 많이 하고, 어머니가 이러한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할수록 유아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고, 공격적이거나 우울 또는 고립된 행동을 적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애정성은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이 유아의 친사회성, 공격성, 우울/고립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부분매개 하였다.

3. 어머니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표상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수정모형 검증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이 연구가설 모형이 보다 적합한 모형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외하고 모형을 수정하여 수정모형의 경로를 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수정모형에서는 χ^2 값이 작아졌고, 자유도는 커졌으며, 그 이외의 적합지수(GFI=.91, TLI=.89, CFI=.90, RMSEA=.09) 또한 전반적으로 향상하여 가설 모형보다 더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표 6과 그림 2는 수정모형의 각 경로계수를 검증한 결과이다.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은 유아의 공격성($\beta=.12$, $p<.001$)과 우울/고립($\beta=.14$, $p<.001$)에 크지는 않지만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을 안정적으로 회상할수록 자녀는 공격적인 행동과 우울하거나 고립된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원어머니 애착표상은 유아의 친사회성에 정적인 영향($\beta=.46$, $p<.001$)을 미치는 동시에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정서적 행동을 나타내는 반응성과 애정성에 의해 각각 부분매개 된 반면, 이성적 행동을 나타내는 한계설정과 합리적 지도에 의해서는 각각 매개되지 못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회고한 아동기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이 안정적일수록 유아는 친사회적

표 5.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df	p	χ^2/df	GFI	TLI	CFI	RMSEA
가설모형	68.75	13	.00	5.29	.85	.87	.80	.10
수정모형	45.15	22	.00	2.05	.91	.89	.90	.09

표 6.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계수 경로			B	β	S.E.	C.R.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	→	유아의 공격성	.78	.12	.14	5.42*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	→	유아의 우울/고립	2.09	.14	.22	9.67*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	→	어머니의 한계설정	.11	.35	.02	5.19***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	→	어머니의 합리적지도	.16	.42	.03	5.45***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	→	어머니의 반응성	.19	.36	.03	6.52***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	→	어머니의 애정성	.04	.39	.01	4.21***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	→	유아의 친사회성	.39	.46	.45	7.95***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	→	유아의 공격성	2.30	.58	.13	1.42***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	→	유아의 우울/고립	3.45	.67	.20	17.15***
어머니의 한계설정	→	유아의 쾌활/통합	-.28	-.14	.11	-2.48**
어머니의 한계설정	→	유아의 공격성	-.85	-.10	.37	-2.31*
어머니의 한계설정	→	유아의 우울/고립	-2.03	-.15	.56	-3.64***
어머니의 합리적지도	→	유아의 쾌활/통합	.57	.38	.08	6.85***
어머니의 합리적지도	→	유아의 공격성	1.15	.18	.27	4.23***
어머니의 합리적지도	→	유아의 우울/고립	2.24	.22	.41	5.42***
어머니의 반응성	→	유아의 친사회성	.61	.42	.09	6.65***
어머니의 반응성	→	유아의 쾌활/통합	.16	.26	.08	1.94*
어머니의 애정성	→	유아의 친사회성	.64	.33	.30	2.15*
어머니의 애정성	→	유아의 공격성	2.95	.34	.87	3.40***
어머니의 애정성	→	유아의 우울/고립	3.17	.43	1.32	2.40*

* $p < .05$, ** $p < .01$, *** $p < .001$

행동을 더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이 안정적일수록 어머니 자신도 자녀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해주며 신체적인 애정표현도 더 많이 표현하여 더 많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였다. 어머니의 원어머니 애착표상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또 다른 긍정적 측면인 쾌활/통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어머니의 양육

행동 가운데 한계설정, 합리적 지도, 반응성에 의해 각각 완전매개 되었다. 즉 어머니의 원어머니 애착표상이 안정적일수록 어머니의 자녀의 생활과 행동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이는 다시 유아가 긍정적인 정서로 타인과의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을 덜 하는 것을 예측하였다. 어머니의 원어머니 애착표상이 안정적일수록 수용되는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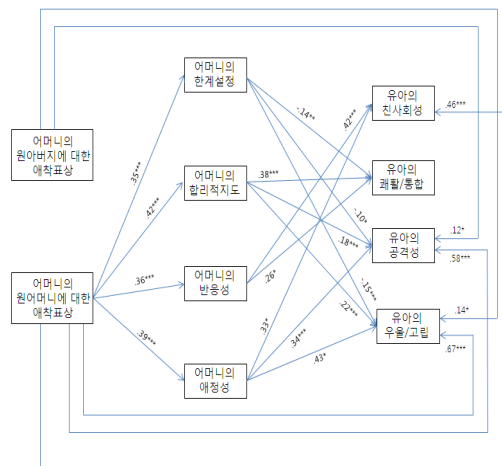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수정모형

동과 수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유아에게 더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는 다시 유아가 긍정적인 정서로 타인과의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예측하였다. 어머니의 원어머니 애착표상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부정적 측면인 공격성($\beta=.83, p<.001$)과 우울/고립($\beta=.77, p<.001$)에 대해서도 각각 높은 영향력을 보였고, 어머니의 한계설정, 합리적 지도와 애정성에 의해 각각 부분매개 되었다. 즉 어머니의 원어머니 애착표상이 안정적일수록 유아는 공격적인 행동과 우울 또는 고립된 행동을 적게 하였다. 동시에 어머니의 원어머니 애착표상이 안정적일수록 어머니는 자녀의 생활과 행동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이는 다시 유아가 공격적인 행동과 우울 또는 고립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예측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원어머니 애착표상이 안정적일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되는 행동과 수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 논리적

으로 설명하고, 신체적인 애정표현이나 친밀감을 많이 나타내며, 이는 다시 유아가 공격적인 행동과 우울 또는 고립된 행동을 덜 하는 것을 예측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모형검증을 통해 어머니가 아동기 때 형성한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이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능력(친사회성, 쾌활/통합, 공격성, 우울/고립)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와 어머니 양육행동(한계설정, 합리적 지도, 반응성, 애정성)의 매개효과를 함께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양육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은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과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이 안정적일수록 어머니는 자녀의 생활과 행동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자녀에게 더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용되는 행동과 수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자녀에게 신체적인 애정 표현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아동기 때 원부모와의 정서적 경험을 통해 형성한 원부모에 대한 애착경험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Belsky(1984)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구체적

으로는 생애 초기 주양육자인 어머니 역할과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Bowlby(1969)의 애착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즉 어머니가 형성한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이 자신의 행동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영향을 주어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은 같은 성의 부모인 자신의 어머니와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초자아의 영향을 받아(정옥분, 2007) 어머니가 자녀에게 정서적 또는 이성적인 양육행동을 행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형성한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은 유아기, 아동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해석에 영향을 주어 인간관계에 대한 기억, 기대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준다(Main, et al., 1985; Waters & Waters, 2006).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을 행함에 있어 자신의 아버지보다는 주 양육자이며 같은 성(性)을 지닌 자신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수용되는 행동과 수용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더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녀에게 신체적인 애정 표현을 더 많이 할수록 유아는 타인을 잘 보호하고 배려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지녀 타인과의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부분적인 정적 상관을 보고한 홍계옥(200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가 자녀의 생활과 행동을 일정하고 일관성 있게 제한할수록 유아는 타인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덜 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덜 보이며, 타인과의 활동을 즐기는 행동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의 생활 및 행동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이를 계속 상기시키는 행동이 유아에게 오히려 심리적 부작용으로 나타나 유아의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 발달에 저해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표상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와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원부모 애착표상과 자신의 양육행동의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원부모 애착표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안정 애착표상은 유아의 공격성과 우울/고립적인 행동을 덜 유발시키는데 적게나마 영향을 미쳤지만,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이 유아가 공격적이고 우울 또는 고립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박소현(2005)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유아의 내재화 또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고 보고한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박소현(2005)의 연구는 본 연구와 연구대상이 다르므로 신중한 자세로 비교해야 할 것이다.

반면 어머니가 회상하는 원어머니에 대한 안정 애착표상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긍정적인 측면인 친사회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어머니의 정서적 양육행동인 반응성과 애정성에 의해 부분매개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긍정적 측면인 쾌활/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어머니의 이성적 양육행동인 한계설정과 합리적 지도, 정서적 양육행동인 반응성에 의해 완전매개 되었다.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은 어머니의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과 마찬가지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부정적인 측면인 공격성과 우울/고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어머니가 회상한 원부모에 대한 안정 애착이 유아의 내재화된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Cowan 등(199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어머니의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이 유아의 공격성과 우울/고립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이성적 양육행동인 한계설정과 합리적 태도, 정서적 양육행동인 애정성에 의해 각각 부분매개 되었으며, 반응성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를 통하여 어머니가 회상하는 자신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이 유아의 공격성과 우울/고립에 미치는 영향에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어머니가 회상하는 원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반응성, 애정성은 친사회성에

대한 영향에, 한계설정, 합리적 지도, 반응성은 쾌활/통합에 대한 영향에, 한계설정, 합리적 지도, 애정성은 공격성과 우울/고립에 각각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 관점으로 볼 때, 어린 시절 원어머니에 대해 안정된 애착표상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관찰한 같은 방식으로 학습하였을 것이고, 이렇게 학습된 행동은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을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원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어머니의 아동기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과 어머니 자신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원부모 애착표상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와 이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유아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한 구성원으로서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른 시기의 중재와 개입이 필요할 경우 유아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의 영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향상에 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며, 이를 토대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에서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만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부모-자녀의 관계를 보다 총체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변인들까지 포함한 연구가 요구된다(Luster & Okagaki, 1993). 즉 어머니의 원부모가 보여준 양육행동을 조사하여 양육행동의 세대 간의 전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또는 일상 스트레스, 양육에 대한 신념 등 까지 포함한 후속연구를 실시하여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어머니 관련 변인들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연구대상을 좀 더 많이 포함시킨 후속연구를 진행한다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이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차연, 장연집 (1999). 어머니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 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51-75.
- 곽소현 (2005).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 행동의 경로모델 분석 - 문제군과 일반군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기남, 문혁준 (2008). 발달적으로 적합한 실제(DAP)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기 양육경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9(3), 23-40.
- 이순형, 이옥경, 민미희 (2006).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 및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81-192.
- 이진숙, 한지현 (200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63-72.
- 정옥분 (2007). *전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 정윤주 (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성격특성,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6(3), 73-85.
- 최영희, 박영애, 박인전, 신민섭 (2002).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자이존중감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03-214.
- 한영옥 (2002).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아동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미국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61-376.
- 홍계옥 (1995).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행동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시사저널 (2007년 10월 23일 939호).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 정신과에 끌리는 아이들.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oyum, L. A. & Parke, R. D. (1995). The role of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593-608.
- Bretherton, I. (2005). In pursuit of the internal working model construct and its relevance to attachment relationships. In K. E. Grossmann, K. Grossmann & E. Waters (Eds.). *Attachment from infancy to adulthood: The major longitudinal studies*, New York: The Guildford Press.
- Clarke, J. I. & Dawson, C. (1998). *Growing up again: Parenting ourselves, parenting our children* (2nd ed.), MN: Hazelden Information and Educational Services.
- Cowan, P. A., Cohn, D. A., Cowan, C. P., & Pearson, J. L. (1996). Parents' attachment histori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Exploring family systems models of link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53-63.
- Crase, S. J., Clark, S. G., & Pease, D. (1978).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Dekovic, M. & Janssens, J. M. A.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25-932.
- Foster, P. A., Reese-Weber, M., & Kahn, J. H. (2007). Fathers' parenting hassles and coping: Associations with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their sons' socioemotional competence.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6, 277-293.
- Goldberg, S. (2000). *Attachment and development*. Arnold: London.
- Hazen, C., & Shaver, P. (1992). Broken attachments, In Orbach, T. L.(Ed.), *Close relationship Loss: Theoretical approaches*, New York: Springer-Verlag.
- Jeon, H. J. (1994).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adjustment in Korean couples: Influences of attachment style, marital comparison, and motivations.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of Cornell University.
- Klitzing, K. V., Stadelmann, S., & Perren, S. (2007). Story stem narratives of clinical and normal kindergarten children: Are content and performance associated with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9(3), 271-286.
- Ladd, G. W., & Golter, B. S. (1988). Parents' management of preschooler's peer relation: Is it related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09-117.
- LaFreniere, P. J. & Dumas, J. E. (1996).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in children Age 3 to 6 years: The short form(SCBE-30). *Psychological Assessment*, 8(4), 369-377.
- LaFreniere, P. J., Masataka, N., Botovskaya, M., Chen, Q., Dessen, M. A., Atwanger, K., Schreiner, S., Montirosso, R., & Frigerio, A. (2002). Cross-cultural analysis of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3(2), 201-219.

- Luster, T. & Okagaki, L. (1993). Multiple influences on parenting: Ecological and life-course perspectives. In T. Luster & L. Okagaki(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s. Hillsdale: Lawrence Elbrum.
 -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No. 1-2, 66-104.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M. (1988). Early experiences,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1-106.
 - Sroufe, L. A. (1988). The role of infant-caregiver attachment in development. In J. Belsky, & T. Nezworski (eds.), Clinical implication of attachment (pp.18-40). NJ: Erlbaum.
- 1 차원고접수 : 2009. 10. 06.
수정원고접수 : 2009. 12. 01.
최종게재결정 : 2009. 12. 01.

The Influences of Mothers' Childhood Attachment Representations on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Examining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s Mediators

Chae, Jin-Young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Kangyi

Dept.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examined (1) the influence of mothers' childhood attachment representations on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2) the mediating effect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s on the pathway of mothers' childhood attachment experiences to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181 dyads of mothers and five-year old preschoolers (96 boys and 85 girls) and their 11 teachers were recruited from 8 day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Korea. The teachers evaluated the preschoolers' levels of social competence. The mothers answered a questionnaire on the subject of attachment representations of their parents of origin, based on their retrospective memories, and their own parenting behaviors as mothers of preschoolers.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percentages, Pearson's correlations using SPSS 15.0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7.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parenting behavior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to mothers' childhood attachment representations of their own mothers, but not with the attachment representations towards their fathers.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showed significant or insignificant relationships, depending on the subcategorie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s. Second, mothers' attachment representations towards their fathers had separate significant influences on levels of preschoolers' aggression and depression/isolation. However, there were no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s for these influences. On the other hand, each mothers' responsiveness and intimacy indicated that there w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mothers' attachment representations of their mothers on preschoolers' prosociality; each mothers' limit setting, reasoning guidance, and responsiveness showed the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preschoolers' cheerfulness/cooperation; each mothers' limit setting, reasoning guidance, intimacy showe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n preschoolers' levels of aggression and depression/isolation. These findings are evidence of the influences of mothers' childhood attachment representations on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ubcategorie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s on these influences.

Key words :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ing behaviors, social competence, mediating effec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